

희망이란 판도라상자와 희생 Hope and Sacrifice in the Pandora's Box

김희곤 / 흥간건축사사무소
by Kim Hee-Kon

인간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의 판도라상자를 하나씩 간직하고 살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논리와 부합되는 아메리칸 드림이 바로 희망의 판도라상자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화 이후 경제발전의 제일원천이 교육이었다는 데에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 교육의 이면에는 고생하는 부모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달라는 부모의 간절한 희망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희망의 무분별함으로 인한 피해들이 오늘날에 와서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적절한 인고의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하는데 그 희생을 희망의 판도라상자안에 넣어두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현 이 사회의 부모나 선배, 원로는 이제 미래를 위한 길을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그 길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마 희생을 담보로 한다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근대의 인간성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생활조건 아래에서는 쓰이지 않고 있는 잉여의 모든 시적 역량이 조금도 축소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하나의 명확한 목적을 향해 결집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 목적이란 현재를 묘사하거나 과거를 부활 또는 요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할 길을 가리키는 것이어야 한다.”
- 니체 -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할 길

우선 건축계를 한정해서 접근해 볼 때 우리 건축계는 선배, 원로, 교수들의 희생을 담보로 미래의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건축 3단체, 예컨대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건축학회는 이제라도 공동의 목적을 향해 머리를 맞대고 한 목소리로 미래를 걱정하는 고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기구 축소, 인건비 삭감이라는 하위적 차원이 아닌 희생을 담보로 하는 상위적인 정신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해야 한다.

심사의 공정성 확보

건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찾아내서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제일 시급한 문제는 각종 공개경쟁에서 선명한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인 승자를 가려야 한다. 진정한 눈물은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좋다. 분노의 눈물은 그 반대이다. 조금 힘이 들더라도 심의과정이나 심사과정을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밤을 꼬박 새운 심사의 실체들은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가능하면 초기 아이디어단계와 프리젠테이션을 구분하여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하고 시행자에게는 보다 더 좋은 안이 탄생되는 촉제가

되어야 한다.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후배, 제자를 위해 이 일만은 해야 하는 것이다.

정보은행 설치

‘호랑이는 죽어도 풀을 먹지 않는다’는 우리네 속담이 있다.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종합건축사, 개인건축사 최근들어 법인, 개인 등 수없이 우리만의 카테고리들 끌고 다닌다. 마치 그냥두면 뭔가 허전해서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통제력이 없어서인지 자꾸만 무언가 족쇄를 만들고 있다. 지금의 현실은 개인, 법인 할 것 없이 ‘풀’을 먹고 있다. 토끼는 풀을 먹어도 살 수 있지만 호랑이는 살 수 없다. 사는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할 뿐 결국 죽는다.

96년 말경 일본의 건축가 이토도요를 대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조그만 사무실에서 1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대운동장을 설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유럽의 건축가들도 마찬가지다.

정말 미래를 위해서 3단체는 과감히 우리를 쫓고 있는 족쇄를 풀어야 한다. 노력과 예산을 모아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써야 한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먹이사슬에 놓여져 있다. 토끼가 잘 뛰어놀아야 호랑이도 산다. 정보은행을 과감히 설치하여 미래를 위해 중복투자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다같이 고통스럽지만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한다. 현재와 같이 과거를 부활하는 듯한 감리제도나 법인·개인식의 눈감고 아웅하는 형식으로는 안된다.

값싸고 더 좋은 재료, 공법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여 건축주는 물론이고 사회에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 소규모 사무실과 대규모 사무실이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정보는 흐른다. 정보는 지식이다. 그러나 현재는 동맥경화지경이다. 그러나 그 지식과 정보는 누구에게나 이롭다.

후배들의 프로정신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선배들이 후배들을 질타하는 말로, 건축사시험을 예로 들면서 5년만 되면 사무실을 그만두고 공부해 사무실에 결원이 생긴다라는 탄식적인 말을 많이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를 다시 떠올리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간은 누구나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창조적인 직

업인 건축가에게는 목말라하는 정신적 가치에 대해서 충분했는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현재의 세계 건축계 흐름을 주도하는 일본의 1941년생 이토도요나 안도다다오, 유럽의 장누벨 등 상당수의 건축가들에게 건축의 스승이나 선배가 없다. 그들 스스로 철저한 프로정신에 입각해 오늘날 명성과 업적을 획득했다. 단 하나 일에 국한해서 원칙을 준수하며 철저한 프로정신을 지키느냐가 문제이다. 일본의 경영귀신인 마쓰시다웅이 프로정신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보면, “어느날 극장에 구경을 갔었는데 그날의 쇼에 중국인 곡예사가 벽면에 아름다운 여인을 세워두고 그 사람을 향해서 단검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던져진 단검이 그 여인의 몸 근접한 곳에 꼽힐 뿐만 아니라 연이어 던져진 단검이 여인의 몸 곡선을 따라서 가지런히 꽂혀졌다. 그때 나는 그것이 바로 프로라고 생각했다. 보고있는 사람도 두렵지만 하는 사람들도 자칫하면 인명에 관계되는 일이다. 만일 지푸라기 인형을 세워둔다면 관객은 보러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추어 경지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이제껏 아마추어경지를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하며 이제라도 우리의 관객인 고객을 위해 철저한 프로가 되어야 한다.

어리석은 이의 바람

어리석은 필자가 코끼리 다리를 보고 기둥이라고 하지 않았나 송구스럽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프로의 정신에 자칫 밥그릇싸움이 되지 않게 해야만이 우리의 건축계도 발전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현재 우리의 위치에 맞는 글귀가 생각한다.

“사무소를 시작하면서 다소 절망적인 전망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나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였다. 이 두려움은 천재적인 것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채 항해를 하지만 생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는 일종의 낙천적인 확실함에서 나온 것이다.”

- 모포시스 -

낙천적인 확실함은 프로의 정신을 자양분으로 하여 탄생되는 미래의 희망이다. 이제 다같이 희생을 희망의 판도라상자안에 넣어두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미래의 희망을 간직하면서...